

만2세 하루일과별 사례 및 교사역할

하루일과	아동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	교사역할
등 원	양육자와 헤어지기 힘들어하는 영아가 있을 때 • “울면 애기되는데?” “울음 똑 그쳐요.”	영아의 정서를 충분히 인정해 주고, 부모와 만날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.
	등원하는 영아가 교사에게 인사를 했을 때 • 대충 인사하거나 인사를 받아주지 않은 경우	환한 미소로 등원하는 영아를 맞이해 준다.
	집에서 가져 온 장난감 무조건 꺼내지 못하게 할 때 • “선생님이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..” “다음에 또 가져오면 뺏을 거예요.”	부모님께 요청하여 장난감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영아에게 왜 놀이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이해시킨 후 나중에 놀이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.
실내자유 놀이활동	영아가 함께 놀이하라며 요구를 해왔을 때 • “선생님은 일해야 하니까 친구랑 놀아.”	자유놀이시간에 교사는 영아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여 영아의 발달 정도나 흥미를 파악한다.
	발음이 미숙한 영아에게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게 할 때	녹음기를 통해 영아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발음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.
	갈등상황을 만드는 영아가 있을 때 • “친구 힘들게 하는 사람은 혼자 놀이하세요.” “애기처럼 욕심 내는 친구는 동생반에 가세요.”	또래 친구와 놀이하기 힘든 영아의 경우는 교사와 함께 안정적으로 놀이한 뒤, 다시 놀이할 수 있도록 한다.
실외놀이	실외놀이가 끝난 시간에 더 놀고 싶어 하는 영아가 있을 때 • “너 혼자 여기서 놀이해, 우리는 들어갈 거야.” 혹은 “너 자꾸 이러면 경찰아저씨에게 잡아가라고 전화할거야.”	영아의 마음을 인정해주고, 더 놀이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주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.
점심식사	바르지 않은 자세로 식사를 하는 영아가 있을 때 • “왜 이렇게 움직이면서 먹니, 바르게 앉아야지, 아기 같구나.” “똑바로 앉아서 빨리 먹어라.”	간식이나 식사시간은 교사와 영아가 개별적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므로 바르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차적으로 바른 태도로 식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. (꼭꼭 씹어먹기, 편식하지 않기, 바르게 앉아 먹기, 스스로 먹기, 감사하며 먹기 등)
	식사를 모두 마친 영아 중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영아가 있을 때	자유롭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되, 한 번에 많은 영아가 함께 가지 않도록 한다.
	음식을 많이 흘리며 먹는 영아가 있을 때	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바르게 앉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, 흘린 음식이 있을 시에는 영아가 스스로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영아가 힘들어할 때에는 교사가 정리를 도와준다.
화장실 가기	손을 씻기 위해 화장실에 간 영아가 손을 씻지 않고 물장난만 하고 있을 때 • “누가 물장난하라고 했니?”	손을 씻는 방법을 설명하며 시범을 보여주고 함께 손을 씻은 후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.
낮 잠	장난을 치거나 이야기를 하며 낮잠을 자지 않는 영아가 있을 때 • “00는 아기반에 가서 자고 와야겠다.” “이야기하지 않아요, • 이야기하면 친구 자는 데 방해가 되요.”	낮잠을 잘 때는 잠이 쉽게 들 수 있도록 방을 어둡게 하여 안정된 분위기를 마련해 준다. 교사도 함께 누워 영아가 안정되도록 하며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동화를 읽어준다.
귀 가	가지고 놀이하던 장난감을 집으로 가지고 가려는 영아가 있을 때 • “이렇게 가져가면 도둑이에요.”	장난감을 갖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주며, 함께 사용하는 물건은 어린이집에서 함께 사용해야 함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.